

[특집]

세속화와 사제의 정체성: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 신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
김 명 식

[의정부교구 지축동요한성당 주임신부]

1. 들어가는 말
2. 사제의 정체성
 - 2.1. 바오로 6세: 삼위일체 차원, 사도적 차원, 신비적 차원의 사제 정체성
 - 2.2. 요한 바오로 2세: 사제, 머리이자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적 대리인
 - 2.3. 베네딕토 16세: 사제직의 신학적·영성적 측면
 - 2.4. 프란치스코: 사제, 그리스도의 자비의 상징인 착한 사마리아인
3. 세속화: 수평적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영적 세속성까지
 - 3.1. 세속화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 3.2. 네 교황의 가르침에 따른 세속화
4. 세속화된 세상에서 올바른 사제 정체성을 살기 위한 제언:

사제의 올바른 삼중 직무

 - 4.1. 가르치는 직무: 올바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직무
 - 4.2. 거룩하게 하는 직무: 그리스도 은총의 살아 있는 도구
 - 4.3. 통치하는 직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를 통한 인도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성 목요일 오전에 교구의 모든 사제들은 교구장 주교가 집전하는 성유축성미사에 참석한다. 성유축성미사 중에 주교는 사제들이 성사를 베풀 때 사용하게 될 성유를 축성할 뿐만 아니라, 사제들이 사제 서품식 때 교구장 주교와 한 약속¹⁾을 갱신한다. 그러나 안타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사제들의 서약 갱신 예식에서 주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제들에게 한다. “친

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서약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제들이 있다. 사목적인 사랑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공무원처럼 처리하는 사제, 사제 생활의 행복을 취미나 자신이 소유한 물건 혹은 사제 직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서 얻는 사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와 경력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며 사제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왜 오늘날 많은 사제들이 서품식과 성유축성미사 때 한 서약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 어떤 사제도 서품 때 한 약속과는 다른 삶을 꿈꾸며 사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모든 사제들은 자신의 삶을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에게 내어주면서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사제가 사제의 삶에서 직면하는 상황들은 사제들을 유혹하고 그 상황들은 사제의 삶을 변화시킨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세속화된 세계는 사제들에게 많은 유혹을 준다.

2022년 바티칸 성유축성미사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오늘날의 사제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첫째는 영적 세속성이고, 둘째는 실용주의이며, 셋째는 기능주의이다.²⁾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우상은 교회 안의 성직자들이 쉽게 섬길 수 있는 우상들이다. 그래서 이 논

애하는 사제 여러분, 우리는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제직을 사도들과 우리에게 주신 날을 해마다 기념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일찍이 서품 때에 한 서약을 그대들의 주교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앞에서 서약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사제 서품을 받은 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인도되어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룩한 직무에 충실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과 친밀하게 일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성찬례와 그 밖의 전례를 집전함으로써 하느님의 신비를 전달하며 머리아시요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말씀의 직무를 인간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충실히 수행하기를 원합니까?” 교구장 주교의 이 세 가지 질문에 사제들은 “네,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서품식 때 교구장 주교와 한 약속을 갱신한다.

2) Cf. Francesco, “Omelia della santa Messa del Crism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2/documents/20220414-omelia-crisma.html>(2024.04.09).

문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적한 세 가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과 일치하여 ‘제2의 그리스도’로서 사제직을 수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제들이 지녀야 할 사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우상 중에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큰 세속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마지막에는 세속화를 극복하고 올바른 사제의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 글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등장한 네 교황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제의 정체성과 세속화 그리고 오늘날 사제들에게 도움이 될 제언들을 할 것이다.

2. 사제의 정체성

2.1. 바오로 6세: 삼위일체 차원, 사도적 차원, 신비적 차원의 사제 정체성

바오로 6세 교황은 그의 재임 기간에 그 이전의 어떤 교황보다도 더 많이 올바른 사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가 사제들에 대한 애정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제직의 위기’³⁾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바오로 6세 교황은 사제의 정체성에 관하여 삼위일체 차원, 사도적인 차원, 신비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삼위일체의 차원에서 사제는 ‘하느님의 사람’ ‘제2의 그리스도’ ‘성령과 친교를 맺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제의 정체성이다. ‘하느님의 사람’인 사제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 하느님의 사람인 사제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사이에서

3) Cf. Paolo VI, “L’omaggio filiale del clero romano”, in *Insegnamenti*, vol.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4, p.15.

하느님의 대변인이자 백성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람인 사제는 하느님 백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⁴⁾

사제는 공생활 중에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자이다.⁵⁾ 그러므로 모든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

‘제2의 그리스도’인 사제는 인간의 영혼과 친교를 이루는 성령의 전달자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성령과 친교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다. 성령은 성품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의 영혼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화시킨다.⁶⁾ 따라서 성품성사를 통해 맺어진 성령과의 관계는 성품성사의 집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사제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제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린다. 그러므로 사제는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⁷⁾

사목적인 차원에서 사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제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제는 다른 이들, 특별히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제직을 받은 것이다. 이는 사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⁸⁾ 타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사제에게 행위의 규범이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된다. 사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으며 그의 영적인 삶은 사제 직무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고 사제는 하느님 백성에게 하

4) Cf. Paolo VI, “Omelia di XVII congresso eucaristico nazionale d’Italia”, in *Insegnamenti*, vol.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6, p.337.

5) Cf. Paolo VI, “Discorso ai sacerdoti anziani e novelli della diocesi Brescia”, in *Insegnamenti*, vol.X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5, p.635.

6) Cf. Paolo VI, “Omelia di consecrazione di cinque nuovi vescovi”, in *Insegnamenti*, vol.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5, p.433.

7) Cf. *Ibid.*, 434.

8) Cf. Paolo VI, “Messaggio a tutti sacerdoti della Chiesa cattolica”, in *Insegnamenti*, vol.V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9, p.314.

느님 말씀의 해석자이자 하느님 신비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⁹⁾

신비적·금욕적 차원에서 사제의 정체성은 사제의 거룩한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제가 하느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봉사자이며, 성령의 전달자라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느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¹⁰⁾ 사제는 하느님에 대한 전문가로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¹¹⁾ 또한 사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2.2. 요한 바오로 2세: 사제, 머리아자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적 대리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세상에는 세속화된 방식의 사제 직무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 전통에 부합하는 사제 직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¹²⁾ 왜냐하면 사제직은 하느님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직의 세속화는 하느님의 세속화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사제 정체성은 수직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¹³⁾

사제 정체성을 수직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사제가 신자들의 인간적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제는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는 신자들의 모든 문제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모은다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신자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으는 것이며, 자신을 위해서가

9) Cf. Paolo 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1, p.597.

10) Cf. M. Caprioli, “Il sacerdozio nel magistero di Paolo VI”, *Ephemerides Carmeliticae* 30/II (1979) 345-359.

11) Cf. Paolo VI, “Discorso agli aspiranti al sacerdozio”, in *Insegnamenti*, vol.IX,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2, p.515.

12)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XI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3, p.495.

13)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IX/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86, p.752.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모으는 것이다.¹⁴⁾

게다가 사제 정체성은 사제의 기능적인 측면만으로 정의되지 않고, 인격과 삶 그리고 봉사의 통합을 통해서 정의된다. 사제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표징을 새긴 성품성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제직은 그 삶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표징과 증언이 되어야 한다. 신자들은 사제들에게서 그러한 표징을 보기를 원하며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¹⁵⁾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를 그리스도 사제직의 일치에 비추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성사로 여겼다.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사제, 왕이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분의 일을 대신한다.¹⁶⁾ 이러한 이유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 성사 차원에서 사제의 세 가지 기능적 정체성(사목적 통치의 직무, 가르치는 직무, 거룩하게 하는 직무)에 대해서 언급한다.¹⁷⁾

사제들의 사명은 하느님 백성의 최고 목표인 영원한 생명을 달성하기 위해 사목적으로 하느님 백성을 다스리고 조직하는 것이다. 사제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목적 성격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¹⁸⁾ 사목적 성격의 목적은 신자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성의 기초, 인간 존엄의 가장 깊은 뿌리로 신자들을 인도하면서, 하느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향하여 그들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교회에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맡기셨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직무는 근본적으로 그리

14)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X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547-548.

15)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 tutti 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9, p.870.

16) Cf. A. Dulles, *Modelli di Chiesa*, Padova: Messaggero, 2005, p.279.

17)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229.

18)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 tutti 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9, p.869.

스도의 독특한 사명에 기원을 두고 있다.¹⁹⁾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사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의 주인이나 소유자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을 향한 종이다.²⁰⁾ 하느님 말씀 선포의 내용은 신앙의 형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현세적 차원에서도 진리와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²¹⁾ 따라서 효과적인 말씀의 선포자가 되고 가르치는 직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제들은 교회가 지시하는 선포의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²²⁾

교회는 일곱 성사의 거룩한 전례를 통해 성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성화 직무를 가지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제들에게 일곱 가지 성사들 중에서 특별히 성체 성사와 고해성사에 큰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고하였다.²³⁾

2.3. 베네딕토 16세: 사제직의 신학적·영성적 측면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따르면 사제의 정체성은 신학적 차원과 영성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학적 차원에 따르면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사제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직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요한 17,18).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였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요한 15,5). 그러므로 사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하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

19) Cf. Concilio Vaticano II, “Lumen Gent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192013, p.342.

20)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281.

21) Cf. Giovanni Paolo II, “Lettera a tutti i sacerdoti”,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79, p.871.

22)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281.

23) Cf. *Ibid.*, p.1175.

다. 사제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야 한다.²⁴⁾ 이런 의미에서 아무도 자기 스스로 사제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느님에게서 비롯되는 성사를 통하여 사제는 사제가 될 수 있다.²⁵⁾

사제가 제2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사제는 친밀하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별히 사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한다.²⁶⁾ 사제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직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알고 싶어 한다. 사제는 하느님을 내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제들에게서 이것을 바라고 있다. 만약 사제가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제는 조금씩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²⁷⁾

신학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제의 정체성은 사제는 하느님 말씀과 성사의 봉사자이며 신자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사람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강론을 통하여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되었다.²⁸⁾ 교회를 하느님 말씀의 집으로 생각하였을 때, 사제는 전례에서 강론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제의 말씀 선포는 사제 자신의 말이 아니다. 말씀 선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해야 하기에 존재론적으로 사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열려 있어야 하며, 아버지께 순종해야 한다. 사제가 이런 자세를 지닐 때 사제는 비로소

24)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0, p.491.

25) Cf. J. Ratzinger, “Annunciatori della parola e servitori della vostra gioia”, in *Opera Omnia*, vol.1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3, p.27.

26)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0, pp.1~4.

27) Cf. Benedetto XVI, “Discorso alla curia romana”, in *Insegnamenti*, vol.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7, p.890.

28) Cf. Concilio Vaticano II, “Presbyterorum ordin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¹⁹2013, p.1250.

진정한 말씀의 봉사자가 된다. 말씀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사제는 바오로 사도가 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처럼 사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²⁹⁾

사제는 또한 성사의 봉사자이다. 성사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신다. 각 사제는 하느님 구원 경륜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³⁰⁾ 특별히 사제는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의 종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모든 사제들이 성체성사와 사랑에 빠지기를 바랐다.³¹⁾

사제는 신자들의 안내자이다. 그런데 사제는 어디로 신자들을 안내해야 하는 것일까? 사제는 반드시 신자들을 하느님께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제가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사제는 올바르게 하느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제는 하느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³²⁾

영적인 차원에서 사제는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초대는 초대하는 사람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사제 영성을 산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사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정의한다.³³⁾

2.4. 프란치스코: 사제, 그리스도의 자비의 상징인 착한 사마리아인

첫째로 사제는 자비와 공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³⁴⁾ 사

29)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0, p.1061.

30) Cf. *Ibid.*, p.633.

31) Cf. *Ibid.*, p.634.

32) Cf. *Ibid.*, p.915.

33) Cf. J. Ratzinger, *op.cit.*, p.558.

34) Cf. Francesco, “Discorso ai parroci della diocesi di Roma”, *AAS* 106(2014), 184.

제는 온 마음을 다해 가난한 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난한 이들과의 친교를 통해 영적인 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³⁵⁾ 사제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감과 친밀감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돌봐 줄 수 있어야 한다.³⁶⁾ 사제는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돌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제는 또한 지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과 용서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³⁷⁾ 주님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용서로 사제는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³⁸⁾

사제는 또한 기쁨의 사도이다.³⁹⁾ 사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데서 오는 기쁨을 하느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⁴⁰⁾ 사제의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단순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다. 사제의 기쁨은 삶의 모든 상황을 사랑과 희망의 눈으로 마주하는 태도이다. 기쁨이 없는 믿음은 경직되고 억압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그럴 때 믿음은 또 다른 고통이 된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이는 거룩함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제는 언제나 기쁨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⁴¹⁾

사제는 파스카의 사람이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며, 아

35) Cf. Francesco, “Discorso a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AAS* 108(2016), 642.

36) Cf. Francesco, “Messaggio ai partecipanti all’incontro dei consacrati ungheresi nell’anno della vita consacrata”,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essages/pont-messages/2015/documents/papa-francesco_20150918_video-messaggio-religiosi-ungheresi.html(2024.04.09).

37) Cf.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promosso da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21, p.772.

38) Cf. Francesco, “Incontro con il clero, i religiosi e i seminaristi”, *AAS* 110(2018), 1417.

39) Cf.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promosso da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21, p.772.

40) Cf. Francesco, “Discorso ai preti, consacrati e seminaristi di Genov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may/documents/papa-francesco_20170527_consacrati-genova.html(2024.04.09).

41) Cf. Francesco, “Angelus”,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1.html(2024.04.09).

무리 어둡고 불합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살아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을 부지런히 살아가며 하느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⁴²⁾ 사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에서 성숙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느님 백성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지녔던 열정을 시간이 지나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신선함을 느끼도록 해 주시며, 하느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⁴³⁾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 백성의 삶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⁴⁴⁾ 사제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진 말씀을 하느님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 하느님 백성의 마음과 삶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⁴⁵⁾ 왜냐하면 사제에 의해서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은 사제에게는 명료한 생각과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며,⁴⁶⁾ 하느님 백성에게는 존엄성, 자유, 정의 그리고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⁴⁷⁾ 이런 의미에서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사람이다.⁴⁸⁾

3. 세속화: 수평적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영적 세속성까지

사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

42) Cf. Francesco, “Discorso a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 *AAS* 108(2016), 643.

43) Cf.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internazionale”, *AAS* 109(2017), 1189.

44)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260.

45) Cf. *Ibid.*, p.2255.

46) Cf. Francesco, “Discorso della visita alla tomba di don Lorenzo Milani”, *AAS* 109(2017), 745.

47) Cf. *Ibid.*, 745.

48) Cf.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IV convegno missionario nazionale”, in *Insegnamenti*, vol.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6, p.604.

제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 활동하며,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이 거룩해지도록 돕는다. 반면에 사제는 백성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달해야 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제를 통해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과 감정이 하느님께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느님 백성의 삶의 경험과 감정을 알기 위해서 사제는 하느님 백성과 함께 살아야 한다. 모든 사제들이 닮아야 하는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 가운데 사시며 죄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현실을 공유하셨다.⁴⁹⁾

하지만 사제는 하느님의 백성 중에서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므로(히브 5,1 참조), 그는 세상의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사제는 사람들의 삶과 삶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사제 정체성의 위기는 사제 삶의 이러한 이중적 측면에서 비롯된다. 사제는 비록 세속적인 삶을 공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인간 현실의 변화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사제들은 유혹을 받는다. 사제는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제 정체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⁵⁰⁾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제는 비록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영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큰 혼란과 사제 정체성의 위기를 야기하는 세속화의 유혹이 널리 있다.⁵¹⁾ 따라서 이 장에서는 오늘날 사제 정체성의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화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교황의 가르침을 통해 세속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9) Cf. Concilio Vaticano II, “Presbyterorum ordin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¹⁹2013, p.1249.

50) Cf. Paolo VI, “Ecclesiam Sua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 Bologna: EDB, ¹⁰1976, p.181.

51) Cf. *Ibid.*, p.183.

3.1. 세속화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세속화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종교와 정치 그리고 역사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네 교황의 세속화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기에 앞서 세속화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세속화는 종교의 쇠퇴로 이해될 수 있다. 종교 교리, 종교적 가치, 종교 제도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는 그 중심적 위치와 영향력을 모두 잃었다. 전통적으로 종교적이었던 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종교적 상징이나 종교적 형태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세속화는 종교 없는 사회의 도래와 종교 자체의 쇠퇴를 의미한다. 종교의 쇠퇴는 곧 하느님의 몰락, 하느님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에서 세속화는 무신론과도 연결된다.⁵²⁾

둘째로 세속화는 세상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종교는 초자연적이고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교는 초자연적이고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 사회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속화는 세상의 일부가 되고 세상과 유사하게 되는 종교적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⁵³⁾

셋째로 세속화는 세상의 거룩한 요소의 상실로 해석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합리적이고 인과적인 설명의 대상이 되면서 세상은 점점 거룩한 요소를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세속화는 초자연적 현상과 신비에 기초한 개념에 따른 설명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과 자연이 탐구의 대상이 된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지위에 대한 문제조차 제기될 수 없다.⁵⁴⁾ 인간과 세계

52) Cf. Giovanni Paolo II, “Discorso al Congresso ‘Evangelizzazione e ateismo’”,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0, pp.825-833.

53) Cf. H. Pfautz, “Christian Science: A Case Study of the Social Psychological Aspect of Secularization”, *Social Forces* 34(1956), 246.

를 합리적 관찰의 대상으로 보는 세속화는 이성을 절대화하려는 합리주의와 연결되며, 실용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그 결과 세속적인 사람은 달성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더욱이 세계는 단일한 형이상학적 체계가 아니라, 문제와 계획들의 일련으로 인식된다.⁵⁵⁾

넷째로 세속화는 사회가 종교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교로부터 분리된 사회는 종교적 가르침과 분리된 삶을 살고, 개인 생활에 종교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종교의 공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한 사회에서 종교는 인간의 내부적 요소만을 다룰 뿐, 사회 제도와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 활동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⁵⁶⁾

3.2. 네 교황의 가르침에 따른 세속화

3.2.1. 바오로 6세: 세속화와 수평적 그리스도교의 위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변화하는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쇄신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에 교회 내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단순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차원의 것들을 내려놓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다.

바오로 6세는 교회의 감정과 관습이 세속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에 적응함으로써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⁵⁷⁾ 세속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기에 바오로 6세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신자들과 사제들에게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하느

54) Cf. M. Eliade, *Il sacro e il profano*, Torino: Boringhieri, 1973, pp.16-18.

55) Cf. H. Cox, *La città secolare*, Firenze: Vallecchi, 1968, p.60.

56) Cf. R. Mehl, “De la sécularisation à l’athéisme”, *Foi & Vie* 1-2(1966), 70.

57) Cf. Paolo VI, “Ecclesiam Sua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 Bologna: EDB, ¹⁰1976, p.183.

님의 개념이 사라진 세속주의에서는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으며, 하느님의 드러남 없이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인간의 거룩함도 제시될 수 없다.⁵⁸⁾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진리와 생명의 풍요로움에 다가갈 수 없다.⁵⁹⁾

세속화의 또 다른 위험은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속화는 문화와 과학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게 된다.⁶⁰⁾ 문화와 과학의 베일 아래 숨은 세속주의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워진 하느님께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설명되는 세계관을 지지한다. 그리고 문화와 과학의 베일에 숨은 세속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결국 하느님 없이 행하고 심지어 하느님을 부정한다.⁶¹⁾

바로 6세는 세속화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그것을 세속주의와 구별한다. 왜냐하면 세속주의는 세속화에 비해 문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6세는 세속화에서 세속주의로의 전환이 매우 쉽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사실 세속화가 형이상학적, 초월적, 종교적 영역에서 분리되면 세속주의가 된다.⁶²⁾

세속화의 세 번째 위험은 세속화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한하여 세속주의로 변질시킬 수 있는 신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6세에 따르면 세속화는 순전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가치의 현실을 주장하는 사고의 경향이다.⁶³⁾ 이러한 경향은 초월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수직적인 차원의 신학보다는 수평적인 차원의 신학을 강조한

58) Cf. Concilio Vaticano II, “Lumen Gent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⁹2013, pp.388-389.

59) Cf. Paolo 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X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4, p.597.

60) Cf. Paolo VI, “Evangelii Nuntiandi”, in *Insegnamenti*, vol.X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6, pp.1467-1468.

61) Cf. *Ibid.*, pp.1467-1468.

62) Cf. Paolo 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X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5, p.667.

63) Cf. *Ibid.*, p.666.

다. 수평적인 차원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신비를 선포하지 않고도 그분 안에서 스승이시며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이야기한다.⁶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평적인 차원과 수직적인 차원을 모두 강조해야 한다.⁶⁵⁾ 교회의 현대성은 항상 전통적인 구조를 거부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숨결과 기도와 은총의 삶, 사랑과 순종의 거룩함을 실천하는데 달려 있다.⁶⁶⁾

3.2.2.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의 길에 있어서 세속화의 위험

요한 바오로 2세의 재임 기간에 세속화는 교회 깊숙이 침투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세속주의를 하느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생산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소비와 쾌락에 압도되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관습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⁶⁷⁾

세속주의는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과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는 유혹에서 파생된다(창세 11,1~9 참조).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종교적인 뿌리를 잘라내고 하느님을 망각하려고 한다.⁶⁸⁾ 사실 인간은 하느님 없이도 세상을 세울 수 있지만, 이 세상은 결국 인간을 등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느님은 인간의 뿌리이자 최고의 목적이시며, 그분 자신 안에 신성한 씨앗을 지니고 계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비를 드러내고 밝혀 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실재이다.⁶⁹⁾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자신이 모든 현실의 원리이자 이유라

64) Cf. *Ibid.*, p.667.

65) Cf. Paolo 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0, pp.898-899.

66) Cf. *Ibid.*, p.950.

67) Cf. Giovanni Paolo II, “Reconciliato et Paenitentia”, in *Enrich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1461.

68) Cf. Giovanni Paolo II, “Christifideles Laici”, in *Insegnamenti*, vol.XI/4,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2087-2088.

69) Cf. Giovanni Paolo II, “Reconciliato et Paenitentia”, in *Enrich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1461.

고 생각한다면, 그는 머지않아 영혼의 고통과 불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며,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와 물질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은 점점 더 굴욕적이고 비정상적인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성(性)의 진정한 의미가 약화되거나 왜곡되고 부의 집중이 극도로 심화되어 사회 안에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⁷⁰⁾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사람들이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고 소비주의적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 기도의 새로운 형태와 방법을 배우려는 열망이 있다.⁷¹⁾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신앙을 전달하는 것을 중단하면 교회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⁷²⁾ 교회는 인류와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⁷³⁾ 특별히 교회는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라는 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력한 사랑으로 죽음과 죄와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인류를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초대해야 한다.⁷⁴⁾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세속화는 인간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 교적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세속화는 구원의 차원에서 신성한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고, 구원을 물질적, 육체적, 수평적 차원으로 축소시킨다. 인간 구원을 위한 올바른 신앙은 예

70)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188.

71) Cf. Giovanni Paolo II, "Redemptoris Missio", in *Insegnamenti*, vol.X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2, p.1517.

72) Cf. Giovanni Paolo II, "Reconciliatio et Paenitentia", in *Enrich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p.1444-1445.

73) Cf. Giovanni Paolo II, "Redemptoris Missio", in *Insegnamenti*, vol.X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2, pp.1517-1518.

74) Cf. Giovanni Paolo II, "Dives in Misericordi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7, Bologna: EDB, ¹³1982, pp.904-910.

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삶을 닮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세속화로 인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믿음과 도덕적 판단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그리스도교적인 맥락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경향이다.⁷⁵⁾ 그럴 경우 구원과 선교의 내용은 너무 인간중심적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비추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 비전에서 하느님 나라와 교회는 전적으로 인간적이고 세속화된 현실이 된다.⁷⁶⁾

3.2.3. 베네딕토 16세: 세속화와 신앙과 삶의 분리로 야기되는 위험

세속화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침투하여 사실상 인간의 존재와 양심에서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발전시켰다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말했다.⁷⁷⁾ 이러한 세속화는 신자들의 신앙, 행동, 일상생활 방식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하느님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하느님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쾌락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하느님의 죽음은 신자와 사제들에게 모두 개인 중심의 삶을 강요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위축과 공허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⁷⁸⁾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세속적 사고방식이

75) Cf. Giovanni Paolo II, “Veritatis Splendor”, in *Insegnamenti*, vol.XV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5, p.348.

76) Cf. Giovanni Paolo II, “Redemptoris Missio”, in *Insegnamenti*, vol.X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2, pp.1500~1501.

77) Cf. Benedetto XVI, “Discorso ai partecipanti all’assemblea plenaria del pontificio consiglio della cultura”, in *Insegnamenti*, vol.I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378.

78) Cf. *Ibid.*, pp.377~380.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 세속화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종교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 활동과 종교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인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 종교의 신념이나 가치는 계속해서 경시된다.⁷⁹⁾ 그 결과 신앙과 삶의 분리는 점점 커진다.⁸⁰⁾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따르면 생활과 신앙이 분리된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야기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인 의미에 대한 것이다.⁸¹⁾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교회가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구원은 복음의 핵심이다.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함에 대한 갈증을 일깨우기 위한 새롭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의 전례에서, 특히 성찬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신자들의 삶 안에서 경험되어야 한다.⁸²⁾

세속화에 따른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구원을 말하는 종교이지만 그 구원은 희망을 통해 얻는다(로마 8,24 참조). 에페소에서 바오로는 에페소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느님 없이 살았다”(에페 2,12 참조)고 말한다. 그들에게 신이 있었지만 희망이 없었기에, 어두운 세계에서 어두운 미래를 가졌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1테살 4,13).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것, 미래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

79) Cf. Concilio Vaticano II, “Gaudium et Spe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192013, p.1430.

80) Cf. Benedetto XVI, “Incontro con i vescovi degli Stati uniti d’America”, *AAS* 100(2008), 316.

81) Cf. Benedetto XVI, “Spe Salvi”,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4, Bologna: EDB, 2009, p.1454.

82) Cf. Benedetto XVI, “Incontro con i vescovi degli Stati uniti d’America”, *AAS* 100(2008), 317.

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공허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희망은 종종 믿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⁸³⁾ 하지만 믿음이 상실된 세속화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인간은 공허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3.2.4. 프란치스코: 세속화와 영적 세속성의 위험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은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과 비교하면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이전의 세 명의 교황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종교로부터의 독립, 종교적 교리와 도덕의 분리에 기초하여 세속화 또는 세속주의를 정의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는 세속화와 세속주의라는 단어보다 ‘영적 세속성’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된다.⁸⁴⁾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영적 세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영적 세속성은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다.”⁸⁵⁾ ‘영적 세속성’은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와 같은 자기애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적 세속성’은 타인의 문제들과 삶에 대한 관심 부족(필리 2,5 참조),⁸⁶⁾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마음의 완고함(사도 7,51 참조),⁸⁷⁾ 마르타처럼 과도하게 일을 하고(루카 10,38-42 참조) 개인의 소명에 있어서 하느님의 본래 위치를 망각

83) Cf. Benedetto XVI, “Spe Salvi”,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4, Bologna: EDB, 2009, p.1440.

84) Cf. H. De Lubac, *Meditazione sulla Chiesa*, Milano: Jaca Book, 2017, p.269.

85)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199.

86) Cf. Francesco, “Angelus”,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2/documents/20220116-angelus.html>(2024.04.09).

87)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9/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90108_noalla-cultura-dellindifferenza.html(2024.04.09).

(묵시 2,4 참조),⁸⁸⁾ 진정한 기쁨의 상실로 인해 물질적 재화의 축적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⁸⁹⁾ 경쟁과 허영,⁹⁰⁾ 이중생활,⁹¹⁾ 뒷담화,⁹²⁾ 아첨,⁹³⁾ 경력주의⁹⁴⁾ 등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교회가 영적 세속성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폐쇄적으로 변해 선교를 등한시한다. 더 이상 복음주의적 열정은 없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의 즐거움만이 교회에 존재하게 된다.⁹⁵⁾

4. 세속화된 세상에서 올바른 사제 정체성을 살기 위한 제안: 사제의 올바른 삼중 직무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속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특히 그리스도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속화의 영향으로 인간은 종교와 신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였고, 종교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분리하여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세속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섬기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논리가 그

88) Cf. Francesco, “Incontro con il mondo del lavoro”,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may/documents/papa-francesco_20170527_lavoratori-genova.html(2024.04.09).

89)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8/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81126_santa-marta.htm(2024.04.09).

90) Cf. Francesco, “Angelus”,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7.html(2024.04.09).

91)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6/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60429_doppia-vita.html(2024.04.09).

92)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3/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30902_pettegolezzo.html(2024.04.09).

93) Cf.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7/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70606_doppia-faccia.html(2024.04.09).

94) Cf. Francesco, “Discorso alle comunità del pontificio collegio spagnolo”,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ap-ril/documents/papa-francesco_20170401_collegio.spagnolo.html(2024.04.09).

95) Cf. J. L. Narvaja, “Narcisismo e mondanità spirituale”, *La Civiltà Cattolica* 4044(2018), 602-603.

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종교가 그들의 삶에서 분리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과 관계 없이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없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세속화된 시대에 하느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은 하느님 없는 삶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 행복을 얻기 위해 다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인간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세속화된 시대에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종종 무시되거나 조롱당하기 일췌이다. 많은 사제들이 세속화된 세상과 소통하고 세속화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는 미미하다. 그 결과 사제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사람들로부터 이해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낄 때, 사제는 큰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낀다.⁹⁶⁾

그렇다면 세속화된 세상과 세속화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사제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할까? 그러나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가 되는 사제는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으며, 그 사제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교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⁹⁷⁾

그러므로 세속화된 사회에서 구원을 위한 노력은 세상과 함께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다. 사목적 열정으로 세속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제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제의 사목 활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제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다.⁹⁸⁾ 그러므로 현시대에 사제는 사제의 고유한 정체성을 자신의 사목 안에서 적절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

96) Cf. Y. Congar, *Ai miei fratelli*, Brescia: Queriniana, 1968, pp.189~190.

97) Cf. Paolo VI, “Discorso a sacerdoti e seminaristi del clero diocesano e degli istituti religiosi”, in *Insegnamenti*, vol.V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69, p.1191.

98) Cf. *Ibid.*, p.1191.

하다. 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사제의 정체성을 사제들이 유지한다면, 사제는 세속화된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사제 양성」에서는 사제의 정체성이 삼중 직무, 가르치는 직무, 성화하는 직무, 통치하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⁹⁹⁾ 모든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하여 유일하고 최고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므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특징짓는 본질적 요소들에 따라 정체성을 실천하고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제직의 삼중(가르치고, 성화하고, 통치하는) 직무는 사제 사목 직무의 독창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모든 시대와 상황에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삼중 직무를 세속화된 시대에 어떻게 실천하며 사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제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1. 가르치는 직무: 올바르고 완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직무

4.1.1. 하느님 말씀에 신뢰

세속화된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성사적 현존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¹⁰⁰⁾ 그리스도의 성사적 현존이 되기 위해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¹⁰¹⁾

오직 말씀 안에 머무름으로써, 즉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사

99)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228.

100) Cf. Concilio Vaticano II, “Dei Verb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192013, p.875.

101)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2, pp.450-451.

제는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될 것이며,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에 어긋나는 것들을 극복하고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사제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아지게 되어, 사제의 말은 하느님의 비밀과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약속을 드러내며, 인간의 마음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¹⁰²⁾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사제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한다.¹⁰³⁾ 그러나 사제는 하느님께 응답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유혹은 사제를 죄짓게 만든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죄는 불순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죄는 하느님을 향한 사제의 마음을 달아버린다.¹⁰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새 계약이 성취되었고 인간에게는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4.1.2. 하느님 말씀의 전파

4.1.2.1. 복음 선포: 강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현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충분히 복음화되지는 않았다. 한때 신앙과 성소가 풍부했던 국가들이 세속화된 문화의 영향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¹⁰⁵⁾ 바오로 6세는 오늘날 신자들이 말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듣는 것에는 지쳐 있으며, 더 나쁜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102) Cf. Paolo VI, “Evangelii Nuntiandi”, in *Insegnamenti*, vol.X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6, p.1444.

103) Cf. Benedetto XVI, “Verbum Domini”,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6, Bologna: EDB, 2012, p.2265.

104) Cf. *Ibid.*, p.2266.

105) Cf. *Ibid.*, p.2390.

반대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¹⁰⁶⁾ 그러나 강론, 즉 메시지를 말로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도 말했듯이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로마 10,14) 있겠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로마 10,17)지기 때문이다.

사제의 강론이 사목적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사제는 강론의 필요와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사랑과 헌신으로 잘 준비된 사제의 강론을 통하여 신자들은 성찬례 전에 특별한 힘과 활력을 얻는다. 또한 사제가 강론을 통하여 자신의 깊은 신앙을 표현하고, 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 신자 전체의 복음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¹⁰⁷⁾ 그러므로 사제의 가르치는 직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강론이다. 사제는 신자들이 자신의 강론을 듣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면 안 된다. 오히려 사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하느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2코린 4,5).

사제는 세상의 나쁜 소식 가운데서 신자들이 항상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강론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폭력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폭력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더 고요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갈망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사제는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쁨이 없으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새로운 기쁨을 끊임없이 새로 얻는다.¹⁰⁸⁾ 사제는 이 기쁨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가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현대 문명이

106) Cf. Paolo VI, “Evangelii Nuntiandi”, in *Insegnamenti*, vol.X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76, p.1459.

107) Cf. *Ibid.*, 1460.

108)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104.

제공하는 불안과 불확실성,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벗어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사제에게 기쁨이 없다면 사제의 생활은 공허하고, 무미건조하고, 외롭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4.1.2.2.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가르침: 교리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20). 사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신앙의 교육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로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사제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온전히 증진하고 날마다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¹⁰⁹⁾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하느님을 무시한다. 현대 세계에서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 우호적인 대화를 장려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교육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느님을 찾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모든 사람과 구원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교리 교육이 필수적이다.¹¹⁰⁾

그렇다면 사제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 세상은 구원과 희망을 추구하지만 건강, 부, 물질적인 복지에 더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구원은 너무 모호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쉽고, 더 체계적인 것들에 더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109) Cf. Giovanni Paolo II, “Catechesi Tradendae”, in *Enchiridion Vaticanum*, vol.6, Bologna: EDB, 1980, p.1804.

110) Cf. *Ibid.*, p.1895.

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알려지는 하느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억측만 불러일으킵니다”(1티모 1,4). 사제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은 유혹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줄 때,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2베드 1,16). 종교와 구원에 관한 사제의 인간적인 대답으로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교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¹¹¹⁾ 만약 사제의 교리 교육이 정통 케리그마에 중심을 두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사제의 가르침은 초월적이고 신적인 차원이 결여된 세속화된 것이 된다.

또 사제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르쳐야 한다.¹¹²⁾ 사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형이상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희망은 일관성 없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실현하는 신뢰할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4.2. 거룩하게 하는 직무: 그리스도 은총의 살아 있는 도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1베드 1,16). 하느님은 인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온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했을 때 거룩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거룩함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그분의 삶의 신비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독특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자신을 결합시키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¹¹³⁾ 교회

111) Cf. F. X. Bustillo, *Testimoni, non funzionar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2, pp.120~122.

112) Cf. Benedetto XVI, “Spe Salvi”,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4, Bologna: EDB, 2009, p.1439.

113) Cf. Francesco, *Gaudete et exsultate*, Milano: Ancora, 2019, p.20.

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그분 삶의 신비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제들에게 맡겼다.

오늘날에도 세속화된 사회에 인간을 거룩함에서 떨어뜨리는 두 가지 위험, 영지주의와 펠라지우스 주의가 있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지주의는 위로와 깨달음, 헌신과 지식을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갇혀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들은 부정한다. 펠라지우스 주의는 신비와 은총보다 인간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 인간은 하느님의 자비, 인간을 먼저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된다.¹¹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에서는 인간은 성사들을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¹¹⁵⁾ 특히 신자들은 성찬례와 고해성사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신앙을 강화하고 더욱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신앙의 신비가 무시되고 그리스도인의 성찬례와 화해의 성사의 중요성은 무시되기 쉽다. 그렇다면 세속화된 세상에서 사제는 성화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4.2.1. 성체성사: 사목적 사랑과 교회 일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

직무 사제직은 성찬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새 계약의 사제직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사제는 성품성사를 통해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성찬례에 결합되며, 성찬례에 특별한 책임을 진다. 빵과 포도주는 직무 사제직의 중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영원한 사제

114) Cf. *Ibid.*, pp.35~51.

115) Cf. Concilio Vaticano II, “Sacrosanctum Concilium”, in *Enchiridion Vaticano*, vol.1, Bologna: EDB, ¹⁹2013, p.107.

이신 그리스도와 성사적으로 일치될 이름으로써 사제는 사실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된다.¹¹⁶⁾

성찬례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은 무엇보다 먼저 사제를 거룩하게 하여 사제가 사목적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봉헌되는 성찬례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 즉 사목적 사랑이 사제의 영혼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제의 사목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적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적 사랑에 참여하는 은총은 성령의 은총이며, 사제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사목적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¹¹⁷⁾

오늘날 사제들은 다양한 사목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목 활동을 하면서 위협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제들이 성찬의 희생 제사에 뿌리를 두고 생활한다면, 사제들이 비록 다양한 사목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목적 사랑을 충전할 수 있을 것이며, 사제 삶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일상적인 긴장에 맞서 싸울 수 있다.¹¹⁸⁾

사제는 또한 성찬례가 선사하는 친교의 신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파라클리토이신 성령을 청하는 성찬례 두 번째 감사기도는 교회 일치에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세상에서 사제는 성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친교의 영성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치를 원하지만 연령, 문화, 인종, 경제 수준에 따라 분열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제는

116) Cf. Giovanni Paolo II, “Ecclesia de Eucharistia”, in *Insegnamenti*, vol.XX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5, p.530.

117) Cf. Giovanni Paolo II, “Omelia durante l’adorazione eucaristica a Seoul”, in *Insegnamenti*, vol.X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785.

118) Cf. Concilio Vaticano II, “Presbyterorum ordin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¹⁹2013, p.1291.

자신을 희생하고 성찬례를 통해 얻은 사목적 사랑으로 세상에 친교의 영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¹¹⁹⁾

성찬례에서 사제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외아들 독생 성자와 친교를 이루면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완성한다.¹²⁰⁾ 사제는 성찬례를 통해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감정과 태도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론적, 심리적, 윤리적, 실존적 유대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¹²¹⁾

사제는 성찬례를 통해 주교와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사제의 직무는 그가 주교와 교계적 친교를 맺을 때에만 실현된다. 사제는 사제단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개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복음에 따라 목자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데 헌신해야 한다.¹²²⁾ 사제와 주교의 친교에서 우리는 사제들이 지켜야 할 복음 삼덕 중에 하나인 순종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자유가 남용되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올바른 권위에 대한 사제의 순종은 세속화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¹²³⁾

사제는 성찬례의 은총을 통해 형제 사제들과도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훈령에서 사제는 먼저 주교와 다른 형제 사제들과 친교를 이루어 그가 사목적 사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¹²⁴⁾ 사제는 자신이 개별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키우고 자신이 속한 개별 교회 안에서 사랑을

119) Cf. Giovanni Paolo II, “Vita Consecrat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5, Bologna: EDB, 1999, pp.585~586.

120) Cf. Giovanni Paolo II, “Ecclesia de Eucharistia”, in *Insegnamenti*, vol.XX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5, p.34.

121)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503.

122) Cf. *Ibid.*, p.1306.

123) Cf. Giovanni Paolo II, “Vita Consecrat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5, Bologna: EDB, 1999, pp.707~708.

124) Cf. Concilio Vaticano II, “Presbyterorum ordin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192013, p.1292.

발전시키도록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랑은 사제가 자신의 직무 안에서 형제애를 느낄 때 발전한다. 사제는 자신이 지닌 이 사랑으로 교회의 부요함과 취약함, 어려움과 희망에 동참할 수 있으며 교회 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다.¹²⁵⁾ 더욱이, 사제들 사이의 형제적 사랑은 사제가 독신 생활을 하면서 정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성의 착취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세속화된 시대에 사제의 정결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줄 것이다.¹²⁶⁾

사제는 목자처럼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자신을 하느님 백성과 묶어 주는 심오한 친교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존엄성과 자유를 얻었으며,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사제는 하느님 백성과의 친교를 인식함으로써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과 역할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¹²⁷⁾ 또한 사제는 개별 교회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의 모든 신자들과도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제는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그들과 친교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주 사제들에게 하느님, 주교, 형제 사제들과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와의 친교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만약 사제가 이 네 가지 친교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는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직주의에 집착하거나 완고한 태도를 갖게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¹²⁸⁾

125) Cf.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1523.

126) Cf. *Ibid.*, p.1408.

127) Cf. *Ibid.*, p.1406.

128) Cf. Francesco, "Discorso alla comunità del Pontificio seminario regionale Flaminio 'Benede

4.2.2. 고해성사: 죄의식과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뢰

오늘날 인간은 죄책감과 죄의식을 잃게 만드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1요한 1,8). 죄는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하느님을 삶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만연한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죄책감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죄로 인해 인간의 내적인 조화가 깨어지면서 내부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과 피조물 전체에 해를 미치게 된다.¹²⁹⁾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제는 고해성사가 주는 은총을 이해하고, 고해성사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제 자신이 먼저 그 은총을 맛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제는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고백하기 위해 매일 자신의 양심을 성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과 하느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소리가 완전히 억제될 수 없듯이, 하느님에 대한 감각과 죄의식도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 인간의 도덕적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며,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거룩한 곳이다. 게다가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 존엄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진정한 자유의 감각이 상실된 세속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양심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도덕적 양심이 흐려지면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감각을 잃

tto XV' in Bologn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9/dec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91209_seminario-benedettoxx.html(2024.04.09).

129) Cf. Giovanni Paolo II, “Reconciliato et Paenitenti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1112.

고 죄에 대한 감각을 잃게 만드는 내적 기준도 잃게 된다.¹³⁰⁾ 그러므로 사제는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양심을 자주 성찰하여 하느님과 죄에 대한 인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들에게 고해실은 고문실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하시는 주님의 자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¹³¹⁾ 현대의 사고방식은 과거의 사고방식보다 자비의 하느님에 더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비라는 개념 자체를 삶에서 배제하고 인간의 마음 안에서 제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의 주인이 되어 모든 창조물들의 원리를 설명하고 지배하려는 인간에게 자비라는 단어는 매우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다.¹³²⁾ 자비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 표현이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제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사제들은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인간다운 선함이 그들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해야 한다.¹³³⁾ 이러한 사제의 모습을 통해 신자들은 세속화된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을 거스르거나 하느님 없이 살 수 없기에 항상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¹³⁴⁾

130) Cf. *Ibid.*, p.1128.

131)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150.

132) Cf. Giovanni Paolo II, “Dives in misericordia”, in *Enchiridion Vaticanum*, vol.7, Bologna: EDB, ¹³1982, p.863.

133) Cf. *Ibid.*, p.894.

134) Cf. *Ibid.*, p.935.

4.3. 통치하는 직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를 통한 인도

4.3.1. 오늘날의 권위: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기 위한 봉사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권위가 자유를 위협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며,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는 사회적 유대, 공동체, 연대를 붕괴시킨다.¹³⁵⁾ 사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함으로써 세속화된 세상에 사회적 연대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계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계 제도는 항상 지배와 연결되어 이해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교회가 추구하는 인간의 권위는 결코 목적이 아니며, 항상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다.¹³⁶⁾ 그러므로 사제는 사람들의 참된 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유일한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권위는 인간에게 이질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깨달음과 구원을 향한 길에 귀중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¹³⁷⁾ 그러므로 사제의 통치 직무의 목적은 인간이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양 떼를 이끄는 봉사이다.¹³⁸⁾

마태오 복음 5~7장은 예수님께서서 군중을 가르치신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리고 7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군중들

135) Cf. Francesco, “Evangelii Gaudium”,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2105.

136) Cf.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9, p.778.

137) Cf. *Ibid.*, p.778.

138) Cf. *Ibid.*, p.778.

의 반응을 소개한다.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마태 7,28-29). 예수님의 권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섬김이며,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은 지상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점에 도달한다.¹³⁹⁾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지닌 사제들이 필요하다. 오직 이 권위를 지닌 사제만이 이 막연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믿음과 안정을 주고 구원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모든 신자들을 대할 수 있다.

4.3.2. 착한 목자: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기

사제의 통치하는 직무는 목자처럼 양들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사제는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어,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요한 10,14-15 참조). 그러나 오늘날의 사제들은 점점 자신의 활동을 기능적, 실용적으로 하며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관리자가 되는 것 같다.¹⁴⁰⁾

에제키엘 예언서 34장은 착한 목자(34,10-26)와 나쁜 목자(34,2-6)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쁜 목자는 양 떼가 하느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양 떼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 양 떼와 동행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며, 적의 공격으로 양 떼가 병들거나 약해졌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양 떼들을 착취하고, 양 떼들 가운데 혼란을 심어 놓는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들은 자신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여기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들은 양 떼를 착취하여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가혹하고 무자비하다. 사제들이 만약 이러한 나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목자는 양 떼를 약하게 만들고 양 떼들을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고 그들을 흩어버린다.¹⁴¹⁾

139) Cf. *Ibid.*, p.781.

140) Cf. Francesco, “Omelia della santa Messa del Crisma”,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2/documents/20220414-omelia-crisma.html> (2024.04.09).

141) Cf. F. X. Bustillo, *op.cit.*, pp.77-80.

나쁜 목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에제키엘 예언자는 착한 목자의 모습도 제시한다. 착한 목자는 자신의 양 떼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그들과 친교를 맺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양 떼의 목자로 드러낸다. 그는 절대로 양 떼를 버리지 않는다. 에제키엘 예언서는 착한 목자의 여러 측면을 소개한다. 우선 착한 목자는 양 떼를 돌보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자기 땅으로 데리고 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 준다(에제 34,12~13 참조). 착한 목자는 일치와 공감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본다. 그는 아픈 양의 상처를 싸매 주고, 힘을 주며, 돌봐 준다(에제 34,16 참조). 착한 목자의 존재는 적의 공격을 막고 양 떼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에제 34,25~28 참조).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 소개된 착한 목자에 빗대어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나는 착한 목자다”(요한 10,14)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착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제는 누구든지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친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 떼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⁴²⁾ 요한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신다.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6),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7).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양 떼를 맡기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양 떼를 이끌기 전에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제 역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백성을 인도하고, 모을 수 없으며, 돌볼 수 없다.

세속화된 시대에 사제들은 양 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양 떼들을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목자가 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사제들은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되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양들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해 당신 백성에게 참된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 주셨고, 그 모습은 모든

142) Cf. Benedetto XVI, “Omelia alla santa Messa per l’ordinazione presbiterale”,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7, p.511.

사제들에 모범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한 목자가 되고 싶은 사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각 사제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제는 예수님과 친밀한 친교를 나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 떼를 돌볼 수 있다.¹⁴³⁾

5. 나가는 말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사제들이 어떻게 삼중 직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해보았다. 하느님의 백성이 사제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제는 삼중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존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은 ‘제2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르치는 직무는 사제가 참된 복음 선포와 교리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릴 때 올바르게 수행된다. 사제는 가르치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한다. 사제는 온 마음을 다해 강론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영적 기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제는 생명의 근원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제가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사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참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제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성찬례와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143) Cf. F. X. Bustillo, *op.cit.*, pp.86-87.

한다. 사제는 성찬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목적 사랑의 은총을 청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느님께 봉헌하며, 신자들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더욱이 사제는 성체성사의 신비인 친교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느님과의 친교, 주교와의 친교, 형제 사제들과의 친교, 하느님 백성과의 친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사제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제는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예수님이 지나셨던 권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사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곤경에 처하고 상처받은 양들을 돌보며, 하느님의 말씀과 성찬례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하느님과 종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초자연적 신비를 제거하는 세속화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사제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제들이 삼중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면, 하느님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사제는 하느님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삶에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세속화된 시대에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나는 많은 이론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¹⁴⁴⁾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은 세속화의 유혹으로 인해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기도 한다. 이때 사제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 있고, 사제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마태 25,26-27 참조).

그러나 사제에게는 사제 삶의 분명한 척도가 있다. 모든 사제들의 문제의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제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144) Cf. J. Ratzinger, “Omelia della Messa Pro Eligendo Romano Pontifice”, https://www.vatican.va/gpII/documents/homily-pro-eligendo-pontifice_20050418_it.html(2024.04.09).

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제직의 결정적인 척도이시며,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생겨나는 사제직의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제들이 이 세상에서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 당신의 삶을 살도록 사제들을 초대하신다. 주님께서서는 사제들을 친구라 부르시고,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사제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제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시며, 사제들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신다.¹⁴⁵⁾ 그렇기에 모든 사제들이 받은 성소는 매우 고귀하다. 모든 사제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면서 세속화된 시대에 참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145) *Ibid.*

[참고 문헌]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CONCILIO VATICANO II, “Sacrosanctum Concilium”(1963.12.04.),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¹⁹2013, pp.1~244.
- _____, “Lumen Gentium”(1964.11.21.),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¹⁹2013, pp.284~456.
- _____, “Dei Verbum”(1965.11.18.),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¹⁹2013, pp.872~911.
- _____, “Gaudium et Spes”(1965.12.07.),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¹⁹2013, pp.1319~1644.
- _____, “Presbyterorum ordinis”(1965.12.07.),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 Bologna: EDB, ¹⁹2013, pp.1243~1318.

2. 교황 문헌(편집 단행본)

- Benedetto XVI, “Omelia alla santa Messa per l’ordinazione presbiterale”(2006.05.07.),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7, pp.550~555.
- _____, “Discorso alla curia romana”(2006.12.22.), in *Insegnamenti*, vol.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7, pp.883~894.
- _____, “Spe Salvi”(2007.11.30.),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4, Bologna: EDB, 2009, pp.1439~1488.
- _____, “Discorso ai partecipanti all’assemblea plenaria del pontificio consiglio della cultura”(2008.03.08.), in *Insegnamenti*, vol.I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377~380.
- _____, “Udienza generale”(2009.06.24.), in *Insegnamenti*, vol.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0, pp.1059~1067.
- _____, “Udienza generale”(2009.07.01.), in *Insegnamenti*, vol.V/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0, pp.1~8.
- _____, “Udienza generale”(2010.04.14.),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489~497.
- _____, “Udienza generale”(2010.05.05.),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489~497.

-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630-640.
- _____, “Udienza Generale”(2010.05.26.),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777-786.
- _____, “Angelus Domini”(2010.06.13.), in *Insegnamenti*, vol.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9, pp.915-919.
- _____, “Verbum Domini”(2010.09.30.), in *Enchiridion Vaticanum*, vol. 26, Bologna: EDB, 2012, pp.2018-2433.
- Benedetto XVI, “Udienza generale”(2011.04.13.), in *Insegnamenti*, vol.V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2, pp.449-460.
- Francesco, “Discorso ai partecipanti al IV convegno missionario nazionale”(2014.11.22.), in *Insegnamenti*, vol.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16, pp.602-605.
- _____, “Evangelii Gaudium”(2014.11.24),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9, Bologna: EDB, 2015, pp.2104-2396.
- _____,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promosso da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2015.11.20.),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21, pp.770-777.
- GIOVANNI PAOLO II, “Lettera a tutti i sacerdoti”(1979.04.08.), in *Insegnamenti*, vol.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9, pp.863-880.
- _____, “Catechesi Tradendae”(1979.10.16.), in *Enchiridion Vaticanum*, vol.6, Bologna: EDB, 1980, pp.1764-1939.
- _____, “Discorso al Congresso ‘Evangelizzazione e ateismo’”(1980.10.10.), in *Insegnamenti*, vol.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80, pp.825-833.
- _____, “Dives in Misericordia”(1980.11.30.), in *Enchiridion Vaticanum*, vol.7, Bologna: EDB, ¹³1982, pp.857-956.
- _____, “Reconciliato et Paenitentia”(1984.12.02.), in *Enchiridion Vaticanum*, vol.9, Bologna: EDB, 1984, pp.1352-1499.
- _____, “Lettera ai sacerdoti”(1986.03.16.), in *Insegnamenti*, vol. IX/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86, pp.726-755.
- _____, “Christifideles Laici”(1988.12.30.), in *Insegnamenti*, vol. XI/4,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1967-2175.
- _____, “Lettera ai sacerdoti”(1989.03.12.), in *Insegnamenti*, vol. XI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541-550.
- _____, “Omelia durante l’adorazione eucaristica a Seoul”

- (1989.10.07.), in *Insegnamenti*, vol.X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1, pp.783~787.
- _____, “Redemptoris Missio”(1990.12.07.), in *Insegnamenti*, vol. XII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2, pp.1398~1557.
- _____, “Lettera ai sacerdoti”(1991.03.10.), in *Insegnamenti*, vol. XIV/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3, pp.492~498.
- Giovanni Paolo II, “Pastores dabo vobis”(1992.03.25.), in *Enchiridion Vaticanum*, vol.13, Bologna: EDB, 1995, pp.1154~1553.
- _____, “Veritatis Splendor”(1993.08.06.), in *Insegnamenti*, vol.XVI/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95, pp.156~375.
- _____, “Vita Consecrata”(1996.03.25.), in *Enchiridion Vaticanum*, vol. 15, Bologna: EDB, 1999, pp.434~775.
- _____, “Ecclesia de Eucharistia”(2003.04.17.), in *Insegnamenti*, vol. XXVI/1,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2005, pp.513~550.
- Paolo VI, “Ecclesiam Suam”(1964.08.06.), in *Enchiridion Vaticanum*, vol.2, Bologna: EDB, ¹⁰1976, pp.163~210
- _____, “L’omaggio filiale del clero romano”(1963.06.24.), in *Insegnamenti*, vol.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4, pp.13~16.
- _____, “Omelia di consacrazione di cinque nuovi vescovi”(1964.06.28.), in *Insegnamenti*, vol.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5, pp.431~437.
- _____, “Omelia di XVII congresso eucaristico nazionale d’Italia”(1965.06. 10.), in *Insegnamenti*, vol.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6, pp.336~343.
- _____, “Messaggio a tutti sacerdoti della Chiesa cattolica”(1968.06.30.), in *Insegnamenti*, vol.V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9, pp.311~316.
- _____, “Discorso a sacerdoti e seminaristi del clero diocesano e degli istituti religiosi”(1968.12.11.), in *Insegnamenti*, vol.V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69, pp.1190~1194.
- _____, “Udienza Generale”(1969.03.26.), in *Insegnamenti*, vol.V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0, pp.897~900.
- _____, “Udienza generale”(1970.06.10.), in *Insegnamenti*, vol.V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1, pp.597~600.
- _____, “Discorso agli aspiranti al sacerdozio”(1971.06.20.), in *Insegnamenti*,

- vol.IX,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2, pp.513~518.
- _____, “Udienza Generale”(1973.06.13.), in *Insegnamenti*, vol.X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4, pp.59~600.
- _____, “Discorso ai sacerdoti anziani e novelli della diocesi Brescia” (1974.07.03.), in *Insegnamenti*, vol.X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5, pp.635~637.
- Paolo VI, “Udienza Generale”(1974.07.17.), in *Insegnamenti*, vol.X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5, pp.664~668.
- _____, “Evangelii Nuntiandi”(1975.12.08.), in *Insegnamenti*, vol.XII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o, 1976, pp.1380~1490.
- Ratzinger, J., “Annunciatori della parola e servitori della vostra gioia”, in *Opera omnia*, vol.12,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3.

3. 교황 문헌(정기 간행물)

- Benedetto XVI, “Incontro con i vescovi degli Stati uniti d’America”(2008.04.16.), *AAS* 100(2008), 305~319.
- Francesco, “Discorso ai parroci della diocesi di Roma”, *AAS* 106(2014), 184.
- _____, “Discorso alla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2016.05.16.), *AAS* 108 (2016), 640~643.
- _____, “Discorso della visita alla tomba di don Lorenzo Milani”(2017.06.20.), *AAS* 109(2017), 744~748.
- _____, “Discorso ai partecipanti al convegno internazionale”(2017.10.07.), *AAS* 109(2017), 1188~1191.
- _____, “Incontro con il clero, i religiosi e i seminaristi”(2018.09.15.), *AAS* 110(2018), 1416~1423.

4. 교황 문헌(교황청 인터넷 사이트)

- Francesco, “Meditazione mattutina”(2013.09.02),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3/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30902_pettegolezzo.html (2024.04.09).
- _____, “Messaggio ai partecipanti all’incontro dei consacrati ungheresi nell’anno della vita consacrata”(2015.09.18),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essages/pont-messages/2015/documents/papa-francesco_20150918_video-messaggio

- religiosi-ungheresi.html(2024.04.09).
- _____, “Meditazione mattutina”(2016.04.29),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6/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60429_doppia-vita.html(2024.04.09).
- _____, “Discorso alle comunità del pontificio collegio spagnolo”(2017.04.01),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ap-ril/documents/papa-francesco_20170401_collegio.spagnolo.html(2024.04.09).
- _____, “Discorso ai preti, consacrati e seminaristi di Genova”(2017.05.17),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7/may/documents/papa-francesco_20170527_consacrati-genova.html(2024.04.09).
- _____, “Meditazione mattutina”(2017.06.06),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7/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70606_doppia-faccia.html(2024.04.09).
- _____, “Meditazione mattutina”(2018.11.26),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8/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81126_santa-marta.htm(2024.04.09).
- _____, “Meditazione mattutina”(2019.01.08),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cotidie/2019/documents/papa-francesco-cotidie_20190108_noalla-cultura-dell-indifferenza.html(2024.04.09).
- _____, “Discorso alla comunità del Pontificio seminario regionale Flaminio ‘Benedetto XV’ in Bologna”(2019.12.09),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9/december/documents/papa-francesco_20191209_seminario-benedettoxv.html(2024.04.09).
- _____, “Angelus”(2021.11.01),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1.html(2024.04.09).
- _____, “Angelus”(2021.11.07.),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1/documents/papa-francesco_angelus_20211107.html(2024.04.09).
- _____, “Angelus”(2022.01.16),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angelus/2022/documents/20220116-angelus.html>(2024.04.09).
- _____, “Omelia della santa Messa del Crisma”(2022.04.14),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22/documents/20220414-omelia-crisma.html>(2024.04.09.).
- Ratzinger, J., “Omelia della Messa Pro Eligendo Romano Pontifice”(2005.04.18.), https://www.vatican.va/gpII/documents/homily-pro-eligendo-pontifice_20050418_it.html(2024.04.09).

5. 단행본

- Bustillo, F. X., *Testimoni, non funzionari*,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2.
- Congar, Y., *Ai miei fratelli*, Brescia: Querinaiana, 1968.
- Cox, H., *La città secolare*, Firenze: Vallecchi, 1968.
- De Lubac, H., *Meditazione sulla Chiesa*, Milano: Jaca Book, 2017.
- Dulles, A., *Modelli di Chiesa*, Padova: Messaggero, 2005.
- Eliade, M., *Il sacro e il profano*, Torino: Boringhieri, 1973.
- FRANCESCO, *Gaudete et exsultate*, Milano: Ancora, 2019.

6. 정기 간행물

- Caprioli, M., “Il sacerdozio nel magistero di Paolo VI”, *Ephemerides Carmeliticae* 30/II(1979), 345~359.
- Mehl, R., “De la sécularisation à l’athéisme”, *Foi & Vie* 1-2(1966), 70~79.
- Narvaja, J. L., “Narcisismo e mondanità spirituale”, *La Civiltà Cattolica* 4044 (2018), 599~606.
- Pfautz, H., “Christian Science: A Case Study of the Social Psychological Aspect of Secularization”, *Social Forces* 34(1956), 246~251.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속화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제들이 영적 세속성을 경계하고, 사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등장한 네 명의 교황,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사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속화의 의미와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올바른 사제 정체성을 유지하며 세속화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제직의 놀라운 신비와 사제직의 고귀함을 엿볼 수 있다. 사제직의 신비와 고귀함을 깨닫게 된 사제들은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하여 세속화된 세상에서 ‘제2의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세속화, 사제 정체성, 가르치는 직무, 거룩하게 하는 직무, 통치하는 직무.